

써야 되겠고 또한 이윤이 적은 학교급식을 원유가 모자란다고 대체하거나 기피하지 말자 가뜰이나 아이들이 흰 우유는 맛이 없다고 유색우유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자.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은 국민 건강을 위하고 낙농업의 장래를 위한 확실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현 협회장이 생산하는 고부가제품 양질의 청정우유를 소비자의 기호를 헤아려 입맛에 맞게 제품을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살길을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만이 '95년에 출범할 WTO(세계무역기구)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대비할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에 바라건데 선거공약으로까지 약속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낙농기자재에 대한 관세 또한 특별 소비세를 면세하여야 할 것이며 집유 일원화 검사공용화를 거론한지 얼마가 되었는데

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낙농진흥법 역시 거론조차 없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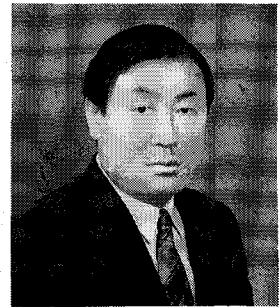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비교우위 수출전략이라는 미명아래 무수히 수탈과 피해를 당하였다. 앞으로 낙농가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낙농가의 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반면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

농민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사까지도 걸려있는 막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낙농산업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임 문 식

본회이사.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장

회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메워 나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한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낙농업은 그 어느때 보다도 도전과 시련이 많았다. 세계가 새로운 무역질서로 개편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돌

입하므로서 구조적 취약성과 냉엄한 국제경쟁을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채 유제품시장이 전면개방됨으로써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또한 사상 유례없는 폭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

올해년 올해도 우리 낙농은 어려움과 혼란이 예견되어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제화, 개방화를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책이 전무

한 상태에서 낙농인력난, 기자재값 상승, 축산폐수처리 비용 증가, 낙농후계자 부족등으로 낙농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심각한 이농현상을 빚고 있어 그동안 애써 다져왔던 낙농업의 기반이 무너져 급기야는 식량기반마저 붕괴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회원 여러분!

이제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어 냉정을 되찾고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질개선을 이루어 총체적 낙농경쟁력 확보만이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행히 낙농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조정을 단행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액수로 보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보나 낙농발전에 상당한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낙농가들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불안없이 낙농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데는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계수적(計數的)이고 농민감정을 의식한 사후 약방문식으로 일관되어 왔으며 U R 타결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 국회, 학계, 농민, 시민등 범국민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공청회를 통한 많은 의견 수렴후 충분한 준비끝에 나온 대책이라기 보다는 농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급조된 졸속조치라 여겨져 수입개방 충격을 얼마나 달래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개방화를 수용하면서 넓어진 세계로 진출할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단지 적당히 숫자를 나열하거나 조령모개식 대책보다 낙농인들이 신뢰하고 낙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낙농시설자금 확충 지원,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사료 관세 면제, 축산관계 행정규제 완화, 원유 및 유제품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추진 등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회원 여러분!

낙농육우협회는 이제 외형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 낙농가의 진정한 권익대변 단체로서 착실히

지주 자조 정신을 제고하여 목장경영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향상, 종축개량을 통한 고능력우 확보, 전업화 규모의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 낙농경영 합리화를 꾀하며 지구적 마련에 출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스스로 강해지도록 하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농산업의 뿌리를 내렸던 지난날의 용기와 경험으로 회원 서로를 위해 끌어주고 밀어주며 합심 단결해 나간다면 아무리 개방의 파도가 높고 거세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리매김하고 있어 우리의 생존산업인 낙농산업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점에서 협회를 통해 낙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정책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 나갈 수 있어 펍 다행한 일이라 여겨진다.

위기에 처한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 낙농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대외 교섭력을 키워 나가야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장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선진 낙농사양기술 보급, 회원간 정보공유화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지회 활성화를 지도강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협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낙농육우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우리 모두의 자기 몫 찾기에 급급하기 보다 전체 이익을 키워야만 궁극적으로 자기 몫을 커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서로간의 노력을 증대시켜 나가며 개인의 창의력도 다수의 협조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때 그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 여러분!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의 창출”일 수도 있다.

어두운 밤이 끝나면 먼동이 트고 새벽이 오듯이 내리막길의 끝에는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게 마련이다.


자주 자조 정신을 제고하여 목장경영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향상, 종축개량을 통한 고능력우 확보, 전업화 규모의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 낙농경영 합리화를 꾀하며 자구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스스로 강해지도록 하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농산업의 뿌리를 내렸던 지난날의 용기와 경험으로 회원 서로를 위해 끌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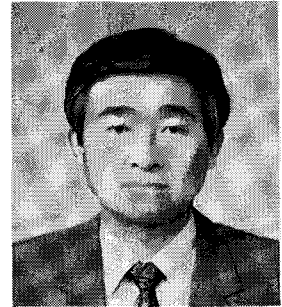
고 밀어주며 합심 단결해 나간다면 아무리 개방의 파도가 높고 거세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낙농가들이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낙농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모든 낙농육우인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조 홍 원

본회이사. 서울우유협동조합이사

1994년 12월 국회는 WTO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 1일 우리는 대학로에서 사상 최대의 농민궐기대회를 갖고 UR제협상과 후속조치 요구를 만천하에 알리고 끊임없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우리 농민의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우리에게 허탈한 배신감만 안겨 주었을 뿐이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이 종량제 등을 이용하여 치밀하고도 철저하게 농민보호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면 우리는 종량제라는 개념조차도 몰라 협상과정에서 문제제기조차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하기야 국제 협상력이라는 것이 그나라의 사회발전 정도나 민도, 국력과 비례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가 농업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UR협상을 한 나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농촌은 별 수 없이 벼랑끝에 몰려 서 있다. 이제 유일한 한기닥 희망은 농어촌구조조정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0년간 15조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착오없이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낙후된 우리농촌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이므로 한푼이라도 헛되히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자금들이 되도록 낙농분야에도 집중투자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낙농육우협회가 올바른 정책건의와 낙농가 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